



## 사쿠타로와 ‘사진’

하기와라 사쿠타로는 중학생 시절에 카메라를 가지게 된 후 사진 촬영에 열중했습니다. 특히 좋아했던 것은 2개의 렌즈를 가진 카메라로 촬영하고 요지경 상자로 입체적인 화상을 보는 ‘입체 사진(스테레오스코프)’이었습니다. 현대에는 3D 사진을 자주 볼 수 있지만, 지금으로부터 100년 이상 전의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어서 친구에게 장난감 같이라며 무시당했다고 합니다.

사쿠타로가 촬영한 사진에는 길, 강, 선로 등 끝없이 이어지는 풍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전경에서 후경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기면서 입체 사진을 보고 있으면 마치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꿈(‘나의 사진기’)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. 그는 ‘나는 그 기계의 광학적인 작용을 빌려서 자연의 풍물 속에 반영되고 있는 내 마음의 향수를 찍고 싶은 것이다.’(앞과 동일)라고 말했습니다. 그 사진에는 고향을 눈앞에 두고도 채워지지 않는 사무치는 향수를 표현하는 그의 시와 깊은 공통성이 느껴집니다.



사쿠타로 촬영 입체 사진 ‘오모리 부근’(마에바시 문학관 소장)